

少陽人 亡陰證 환자의 治驗 2례

박은아

동수원한방병원

Abstract

A Clinical Case Study of Yin Exhausted Syndrome in Two Soyangin Patients

Park Eun-Ah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suwon Oriental-medicine Hospital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n account of the effects of Korean herbal medicine therapy which i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or two patients who were suffering from Yin Exhausted Syndrome.

2. Methods

Patients were diagnosed as having Soyangin Yin Exhausted Syndromes by physical characteristics, posture, and symptoms and were evaluated with an interview and laboratory tests aft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ation.

3. Results

After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ations of Hyungbangsabek-san(荊防瀉白散), Hyungbangjihwang-tang(荊防地黃湯), Juhryungchajunja-tang(猪苓車前子湯), Shihochungiang-tang(柴胡清腸湯) were used diarrhea and other symptoms were improved.

4. Conclusions

These case-studies show an efficient result of using Sasang traditional medicine in the treatment of Yin Exhausted Syndrome.

Key Words : Soyangin, Yin Exhausted Syndrome, Diarrhea, Colitis

I. 緒 論

少陽人の 亡陰證은 泄瀉를 主症으로 나타내는 少陽人の 독특한 질환군으로 少陽傷風證 結胸證과 같은 屬이되 重證으로 판단해야 한다. 東武 李濟馬가 기록한 급격하고 다량의 泄瀉를 주 증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치험례는 탈수로 인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위험해졌

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접하는 질병으로서의 亡陰證은 콜레라, 급성장염, 만성장염, 신경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위장장애 등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亡陰證을 初證·重證과 末證으로 구분한다면 전염성 질환인 콜레라와 급성장염은 重證과 末證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亡陰證의 初證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亡陰證은 주된 증상을 위주로 하여 身寒腹痛泄瀉와 身熱頭痛泄瀉로 나누어 치료하게 된다. 이에 無氣力과 少氣를 동반한 身寒腹痛泄瀉 亡陰證 1례와 中風 환자로써 身熱頭痛泄瀉 亡

• 접수일 2006년 10월 30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저자 : 박은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Tel : +82-31-210-0881 Fax : +82-31-210-0146
E-mail : 3731575@hanmail.net

陰證이 생긴 경우 1례를 치료하여 호전이 있어서 보고하는 바이다.

II. 症 例

<症例 1>

- 1. 患 者 : 정○○(F/33)
- 2. 發病日 : 2006년 4월 25일
- 3. 主訴症 : 惡心, 胃脘痛, 水泄, 無氣力, 少氣懶言, 眩暈
- 4. 過去歷 : 2002년 喘息으로 약 복용하고 현재 까지 흡입약 사용 중. 2006년 1월 痔疾수술.
- 5. 家族歷 : 別無所知
- 6. 現病歷

상기 환자는 만 33세, 보통체격, 예민한 성격의 여자 환자로 평소 상기 過去歷 외에 別無大病하던 중 2006년 4월 25일에 상기 主訴 발하여 OO한의원 방문하여 치료 중 別無好轉하여 2006년 5월 3일 본원으로 입원함.

7. 初診所見

1) 體質鑑別

① 體刑氣像

키166cm 체중 54kg의 보통 체격으로 전체적인 체형이 上體와 下體가 균형 있게 발달하였고 팔다리가 길고 활동적인 느낌이나 氣力이 없어 보인다. 최근 체중감량을 무리하게 하여 3개월 동안 64kg에서 54kg으로 감량되었다.

② 容貌詞氣

피부색은 하얀 편으로 耳目口鼻는 크지 않고 얼굴의 인상은 다소 예민해 보인다. 목소리는 크지 않고 가늘며 자신의 過去歷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편이다.

③ 性情

성격은 급하고 예민한 편이며 한 가지에 집착하는 면이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2) 素證

- ① 食欲 및 消化狀態 : 평소 食欲은 양호하고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며 특별히 가리는 것은 없다.
- ② 大便 : 평소 1~2회/일 排便하며 便秘는 없으나 (오전에 냉수마시는 것으로 관리하여 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성적인 痔疾이 있었다.
- ③ 小便 : 평소 4~5회/일 정도로 小便에서 불편한 감은 없었다.
- ④ 睡眠 : 잘 자는 편이었으나 이번에 發病이후 꿈도 많이 꾸고 잘 못 잔다.
- ⑤ 飲水 : 갈증은 거의 없는 편으로 물은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며 冷水나 溫水를 특별히 가리지 않았다.
- ⑥ 汗出 : 평소 自汗出 별로 없으나 요즘 얼굴, 가슴에 조금씩 나는 편이다.
- ⑦ 舌質 : 淡紅色 舌苔微白
- ⑧ 脈象 : 沈軟

3) 初診時 Vital sign : Blood pressure 100/60mmHg
 Pulse rate 72회/min
 Respiration rate 18회/min
 Body temperature 36.4℃

8. 治療經過

2006년 5월 3일, 본원에 내원한 당시 全身無力感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惡心과 胃脘痛은 오전에 심하였으며 水泄양상의 泄瀉가 있었다.

- 5월 5일 : 荊防瀉白散¹⁾ 투여를 시작하였다.
- 5월 8일 : 惡心 胃脘痛 등의 消化器 系統 症狀이 호전되었다. 大便은 5월 7일부터 軟便양상으로 1일 1회보며 氣力도 조금 나아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好轉되었다.
- 5월 11일 : 입맛이 좋아지고 大便도 軟便 보다는 조금 더 굳어지는 樣相이다. 자리에 서 일어나 걸어 다닐 정도의 氣力을 회복

1) 生地黃 三錢 茯苓 澤瀉 各 二錢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一錢 右方 治頭痛 勝眩熒躁者 宜用

Table 1. The Progress of Symptoms(+++severe, ++moderate, +mild, -no symptom)

	5/3	5/5	5/7	5/9	5/11	5/13	5/15	5/17	5/19	5/21	이후
腹痛泄瀉	++	++	+	+	+	-	-	-	-	-	-
氣力	+++	+++	+++	++	++	++	+	+	+	+	-
聲音	+++	+++	++	++	+	+	-	-	-	-	-
처방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					

하였으나 아직 기운이 없다. 목소리도 好轉 되었지만 조금 피로하면 목소리가 잠긴다.
 · 5월 15일 : 大便은 정상적으로 보나 전신의 氣力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오후에는 매우 피곤하다고 한다.
 · 5월 18일 : 荊防地黃湯²⁾ 투여를 시작하였다.
 · 5월 25일 : 걸음걸이에 힘이 있고 목소리와 표정도 밝아졌다.
 · 6월 3일 : 퇴원 시에는 입원 시의 제반증상이 90%이상 호전되었으나 기력은 정상상태의 70%정도 호전되었다.

〈症例 2〉

1. 患 者 : 박○○(M/48)
2. 發病日 : 2006년 6월 27일
3. 主訴症 : Right hemiparesis Grade 상지Ⅲ/V 하지 Ⅲ/V, Dysarthria
4. 過去歷 : 2006년 3월 右眼 백내장 수술
5. 家族歷 : 큰 형_CVA로 死亡
형제들_高血壓
6. 現病歷
상기 환자 만 48세 비만한 체격 급한 성격의 남자 환자로 평소 상기 過去歷 외에 別無大病 하던 중 2006년 6월 27일에 상기 主訴症 발하여 오산서울병원 입원하여 Cerebral infarction (Left Basal ganglia) 진단 받고 입원 치료 중 2006년 7월 1에 본원으로 전원함.

2)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7. 初診所見

1) 體質鑑別

- ① 體刑氣像 : 키155cm 체중 70kg의 다소 비만한 체격으로 전체적인 체형이 下體보다 上體가 조금 더 발달하였다.
- ② 容貌詞氣 : 피부색은 검은 편으로 코와 입은 작은 편이고 눈썹은 진하고 머리 술이 없고 얼굴의 인상은 강한 편은 아니나 눈빛이 강한 편이다. 말은 빠른 편은 아니고 목소리 또한 탁한 低音이다.
- ③ 性情 : 성격은 급하고 예민하며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자상한 면이 있다.

2) 素證

- ① 食欲 및 消化狀態 : 食欲은 양호한 편이나 음식을 보았을 때 느낌이 좋지 않거나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면 바로 滯한다.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 ② 大便 : 평소 1회/일 排便하며 便秘는 없는 편이고 가끔 軟便의 양상이 있었다.
- ③ 小便 : 평소 4~5회/일 정도로 小便에서 불편한 감은 없었다.
- ④ 睡眠 : 약간의 不眠경향이 있고 자다가 한번 깨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는 때가 많다.
- ⑤ 飲水 : 갈증은 거의 없는 편으로 飲水量도 많지 않고 冷水나 溫水를 특별히 가리지 않았다.
- ⑥ 舌質 : 微紅色 舌苔微白
- ⑦ 脈象 : 弦緊

3) 初診時 Vital sign

Blood pressure 140/90mmHg
Pulse rate 76회/min

Table 2. The Progress of Symptoms(++severe, ++moderate, +mild, -no symptom)

	7/3	7/4	7/5	7/6	7/7	7/8	7/9	7/10	7/19	7/30	이후
泄瀉			++	+++	++	-	-	-	-	-	-
설사횟수			3	7	3						
頭痛	++	+++	+++	++	+++	+	+	+	+	+	+
發熱	++	++	+++	+++	++	+	+	+	-	-	-
최고체온	38	37.8	39.8	38.5	38	37.5	37.2	37			
小便不利	+	+	++	+	-	-	-	-	-	-	-
處方	荊防瀉白散				柴胡清腸湯				豬苓車前子湯		

Table 3. Laboratory Test(serum)

	7/1	7/5	7/7	7/8	7/9	7/12	7/14	7/21
WBC(/ μ l)	9000	16700	23300	12000	8200	10300	11700	8300
Hb(g/dl)	13	13.6	12	11.5	11.6	13	13.2	13

Respiration rate 20회/min

Body temperature 36.5℃

8. 治療經過

환자는 2006년 6월 27에 발생한 Right side weakness, Dysarthria로 타병원에서 Cerebral infarction (Left Basal ganglia) 진단받고 7월 1일 본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7월 1일 저녁부터 左側 偏頭痛을 호소하며 37.8℃의 發熱이 check되었다. 침 치료 및 엑기스제 투여(淸上蠲痛湯³⁾), 수액요법(생리식염수) 등으로 頭痛의 호전과 재발이 계속되었고 脈은 浮弦數하여서 7월 3일부터 少陽人 發熱頭痛으로 荊防瀉白散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7월 5일 갑자기 泄瀉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7월 4일에 상한우유를 마신 것 같다고 하였으며 小便不利가 겸하여 있고 惡寒이 심하고 체온이 39.8℃이 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WBC(White blood cell)가 16700/ μ l이 되어서 이에 항생제가 투여되었다(Cycin inj.). 그러나 7월 7일 까지 특별한 증상의 호전이 없고 WBC가 23300/ μ l으로 더

욱 상승하며 水泄의 양상이 심해져서 膿같은 변이 되었다. 이에 禁食을 시키고 수액과 韓藥만 투여하였다. 처방은 대변검사에서 이질균이나 세균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변의 양상 및 裏急後重의 증상을 보고 한방적인 痢疾의 범주로 판단하여 黃連淸腸湯⁴⁾의 加減方인 柴胡淸腸湯⁵⁾을 투여하였다. 이후 7월 8일부터 泄瀉를 하지 않아 식사를 다시 시작하였고 WBC또한 12000/ μ l으로 떨어지고 惡寒發熱 및 小便不利 등의 증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태의 호전을 보였다.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柴胡淸腸湯에서 黃連의 양을 1錢으로 줄여서 투여하고 이후 身熱頭痛泄瀉의 처방중 하나인 豬苓車前子湯⁶⁾으로 처방하여 지속적인 호전을 보이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3) 羌活 防風 黃芩 各 1.5錢 蒼朮 川芎 獨活 麥門冬 當歸 各 1錢 蔓荊子 甘菊 薄荷 甘草 0.5錢 生薑 1.5錢

4) 生地黃 四錢 木通 茯苓 澤瀉 各二錢 豬苓 車前子 川黃連 羌活 防風 各一錢 右方 治痢疾者 宜用
5) 黃連 生地黃 各三錢 木通 二錢 茯苓 澤瀉 各一錢 豬苓 羌活 柴胡 各一錢
6) 茯苓 澤瀉 各二錢 豬苓 車前子 各一錢五分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右方 治頭腹痛 有泄瀉者 宜用

Ⅲ. 考察 및 結論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고 하여 亡陰證의 주된 증상은 泄瀉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遁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라고 하여 脾局에서 腎局으로 陰氣의 下降이 정상상태를 잃어버린 것으로서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少陽人 대변의 상태는 表裏病이 맺혔는가 풀렸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 表裏病 結解 必觀於大便而少陽人 大便 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其次 大滑便 一二次 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快解之大便也 其次 一二次 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 或過一晝夜有餘不通 或一晝夜間 三四五次 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라고 하여 대변의 상태를 보고 건강한 상태부터 병의 징후까지 알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泄瀉의 정의는 장내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감소나 분비증가로 대변 내에 수분증가나 배변회수가 증가 된 것이며, 혹 24시간 내의 묽은 배변의 총 무게가 250g을 넘거나 또는 대변 내 수분 량이 200ml이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³.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고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어 치료하게 되는데 상기 <症例1>의 경우는 급성 증상에 만성이 겸한 비감염성이고 <症例2>의 경우는 급성설사이며 감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四象 治法으로 亡陰證은 기본적으로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 두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身熱頭痛泄瀉는 猪苓車前子湯이나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身寒腹痛泄瀉는 滑石苦參湯이나 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

<症例1>의 경우는 내원당시 증상은 無氣力

이 심하여 누워만 있는 상태였으나 병은 서양 의학적 진단 없이 비교적 단순한 亡陰證의 증상을 나타내었다. 여러 가지 다른 증상 또한 脾受寒表寒病의 양상을 나타내었고 過去歷에서 喘息 및 浮腫이 있었으며 현 증상인 水泄 惡心 胃脘痛이 급성으로 생겼기 때문에 荊防瀉白散을 써서 清利熱 降表陰시키는 것으로 첫 단계의 치료를 하였다. 그 이후에 병의 경과가 길고 少氣懶言 無氣力 등의 만성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荊防地黃湯으로 補陰까지 하여 많은 好轉을 보인 症例이다. 특징적으로 荊防瀉白散을 쓴지 5일후부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였는데,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病 無論 表裏病 手足掌心有汗 則病解 手足掌心不汗 則雖全體皆汗 而病不解.”고 하였다.

<症例2>는 身熱頭痛泄瀉에 속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 의학적으로 급성장염으로 진단 할 수 있다.

이 환자는 병이 나기 전 평상시에도 자주 滯하는 등의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 平居 表寒下多者 得病 則必成亡陰也 亡陽亡陰人 平居 預治補陰 補陽 可也”라고 하였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食滯痞滿 腹痛으로부터 현재 발병한 中風 및 亡陰證으로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性情과 관련해서도 『壽世保元甲午舊本』⁴에 “少陽人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라고 언급이 있는데 위의 환자 역시 평소 성격이 강하고 급한 면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병이 시작될 때에 發熱 및 심한 頭痛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데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 有身熱頭痛 則已非輕證 而兼有泄瀉 則危險證也 必用荊防瀉白散 日二三服 又連日服 身熱頭痛 清淨然後 可免危險.”라고 하였다. 이에 發熱 및 頭痛이 있어서 荊防瀉白散을 투여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病 以火熱 爲證 故 變動甚速 初證不可輕易視之也. 凡少陽人 表病 有頭痛 裡病 有便秘 則已爲重病也”라 하였듯이 병의 진행이 신속하여 바로 심한 泄瀉를

發하였으며 發熱 惡寒 및 頭痛의 제반증상이 매우 심하였다. 이에 荊防瀉白散으로 호전될 상태를 이미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여 裏急後重 및 膿같이 보이는 대변의 양상과 高熱에 역점을 두고 柴胡清腸湯을 처방하여 上記한 효과를 보았는데 이것을 清裏熱 降表陰이라는 少陽人 처방의 치료원칙에 뿐 아니라 단편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도 柴胡의 清熱작용과 黃連의 위장관계 鎮靜 解毒 작용⁵⁾으로 호전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염증 소견을 나타내는 수치인 WBC가 처방 중인 항생제에도 특별한 반응 없이 심해졌으나 한약처방이 들어간 직후에 확인한 감소를 보인점이 드러났다. 이후 柴胡清腸湯에서 黃連의 양을 1錢으로 줄여서 처방하였고 發熱 惡寒 및 泄瀉의 증상이 호전된 다음 豬苓車前子湯을 처방하였다. 이 豬苓車前子湯은 身熱頭痛泄瀉의 대표 처방이면서 동시에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조문에 小便不利에 쓴다는 언급이 있듯이 상기 환자의 제반증상 및 병증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으며 남아있던 腹痛 및 頭痛도 점차 좋아졌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 도달하자 빠른 호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中風이라는 큰 병이 생기기까지 걸므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랜 병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환자의 병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東醫壽世保元』에 “用藥 必無過二三日矣 四日 則晚矣 五日 則臨危也.”라고 하였고 “亡陰證 古醫別無

經驗用藥頭話 而李子建 朱震亨 書中 若干論及之 然 自無明的快驗 蓋此病 從古以來 殺人 孟浪甚速 未暇經驗獵得裡許故也.”라 하였는데, 發熱, 泄瀉의 양상이나 WBC의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수액 공급 등의 양방적인 처치가 전혀 없었던 당시에는 수분의 상실이나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두 가지 증례를 통하여 少陽人 亡陰證 환자 2명에 대하여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 豬苓車前子湯, 柴胡清腸湯의 운용으로 임상적 효험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V. 參考文獻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편.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5:251-266.
2. 이상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少陽人 亡陰證 治療 臨床例.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3):
3. 全國韓醫科大學 脾系內科學教室共編. 脾系內科學. 東友. 서울, 2000:174-182.
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의학 문헌집.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38.
5. 金昌玟外. 中藥大辭典. 鼎談, 서울, 권6 2622-2632, 권10 5024-5041.